

강진 도암면지사협, 노인 틀니관리 지원

기부 릴레이 모금액 활용 틀니사용 노인 50명 지속 관리 틀니사용자 구강상태 검진·관리법 강의·관리용품 지원

강진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해성, 이상식)가 틀니사용 노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행복천사 릴레이 모금액을 활용해 추진하는 행복나무심기 두 번째 프로젝트인 '어른이가 튼튼, 어른건강 튼튼'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올바른 틀니관리를 돕는 간편한 관리용품을 배부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서비스다.

사업대상을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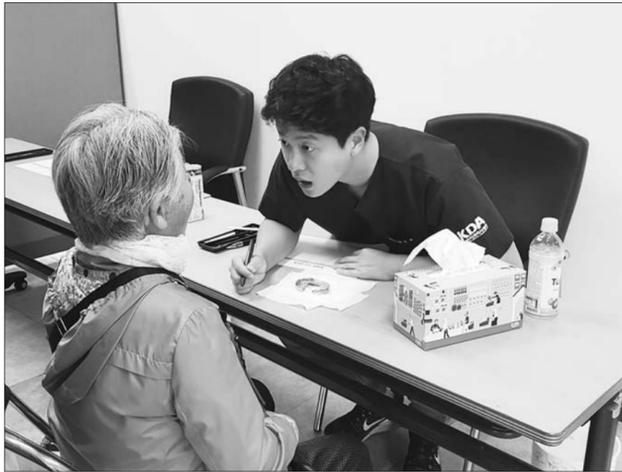
도암면지사협은 사업시행 전인 지난 9월부터 마을 이장과 함께 틀니 사용자 조사를 실시해 총 201명의 대상자를 찾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 틀니관리 서비스를 소개하며 신청토록 안내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일에는 면사무소 2층에서 도암과 작천 보건지

소 치과의사들을 초빙해 틀니사용자의 구강상태와 관리실태를 검진하고 올바른 틀니관리법에 대한 강의도 실시하는 한편 참석한 모든 노인들에게 틀니 관리용품을 지원했다.

이날 검진과 강의를 함께 진행한 도암 보건지소 박진영 치과공보의는 "의치성 구내염의 경우 대화, 식사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심한 경우 관상동맥질환,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늘 오신 분들의 60% 이상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에서 참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성자마을 한 어르신은 "20년 넘게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마다 빼서 잘 씻어놓고 자야하고 뜨거운 물에 절대 담그면 안되고 전용 소독약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의사선생님이 친절하게 봐주고 앞으로 소독기도



강진 도암보건지소 치과공보의가 서비스에 참여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주고 잘 가르쳐 준다고 하니 정말 좋다. 오래 살고 불임이다"면서 활짝 웃었다.

도암지사협은 이날 검진을 받은 60명 중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 30명에게 가정용 소형 틀니 소독기를 구입해 배부하고 정기적인 안내와 관리를 지원하는 등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지켜드릴 계획이다. 또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말까지 추진하는 릴레이 모금 2차 사업은 틀니관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2가구에 8백만 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SOS사업에 150만 원을 지원한다.

/강진=전원재 기자 wjzun@

신안, 2019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13일까지 신안 증도...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참석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해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2019년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슬로시티 신안 증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갯벌 보존으로 유명한 독일 외덴해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인 Bernard Baerends (네덜란드), EAAFP 사무국 대표 Doug Watkins (호주), IUCN 아시아지역사무소 선임담당관 Raphael Glemet (프랑스)을 비롯한 7개국 국내·외 전문가 30여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황해 철새와 서식지 보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철새들의 정보 교류와 핵심 서식지인 황해 갯벌의 지속 가능한 보전방안을 논의하고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계획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



한 주제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주관해 왔던 신안군은 최근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새 개체군의 지속적인 감소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목포, 고하도 해안테크 공사 완료...오늘부터 개방

고하도 전망대 부터 용머리 까지 약 1km 폭 1.8m 시설

목포시는 고하도 해안테크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11일부터 탐방객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고하도 해안테크는 고하도 전망대에서 목포대교와 인접한 용머리까지를 해상에 설치된 연장 약 1km 폭 1.8m의 시설로 탐방객이 상호 충분히 교행 할 수 있는 구조이며 탐방 소요시간은 왕복 30분 정도이다.

특히, 탐방객들은 용머리까지는 해식애(바다의 암석이 깎여 언덕모양으로 생긴 지형)로 지정된 절경을 감상하고 돌아올 때는 고하도 능선에 조성된 옹오름 숲길을 이용하면 아름다운 목포 자연풍광을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해안테크 내부에는 용머리와 중간지점에 넓은 광장 형식의 포토존 2개소가 설치

돼 있다. 용머리 포토존에는 높이 4m의 옹오름 형상화한 조형물이, 중간지점에는 조선 수군이 명량대첩 승전 이후 전력정비를 위해 고하도에서 106일 동안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4m 높이의 이순신 장군 조형물이 설치됐다.

목포시는 지난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해안테크에 대해 공인된 전문기관에 안전 진단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및 시공방법 변경 등을 통해 탐방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물로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안전시공을 위해 감리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왔으며, 개방 후 발생 가능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석 방지망과 CCTV



고하도 해안테크 전경. /목포시 제공

도 설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하도 해안테크 조성이 완료되면서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에서 옹오름 숲길, 고하도 전망대까지의 육상 코스

에 이어 해상으로 용머리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5km 탐방로가 만들어져 고하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 받을 것이 기대된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무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무안군(군수 김 산)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대 주민 홍보를 해 오고 있으나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

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복지부-민관 합동점검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관련법에 의한 분야별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어, 양 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무안=고민재 기자 mjgo@

영암 덕진면 조영주 의장, 다문화가정 지원

영암군 덕진면(면장 신용현)은 최근 영암군민주평통협의회 조영주 의장이 주선해 다문화 이주 여성의 친정나들이를 지원했다.

덕진면에 따르면 조의장은 최근 덕진면 내촌마을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폰타날리아이 엘씨(48)씨에게 친정 나들이 비용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호진 덕진면면체위

원장을 비롯한 양훈섭 이장단장등도 참여해 그 뜻을 함께했다.

엘씨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로서 불효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조영주 의장은 매년 1가정을 선정해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http://www.jndomin.kr/



산업재해 사고 사망 상해부위 1위는 '머리'

안전모 한번더 확인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